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조정아

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한 남한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십 세 이상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에게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한 자료와 새터민을 접촉하는 남한사람들인 신변보호담당관들과 새터민 지원단체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집단면접조사를 시행한 자료를 사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여 나온 주제들 중에서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문화통합교육을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주제들을 선별해내었다. 이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어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적응, 문화적응, 문화통합, 문화통합교육

*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자’를 뜻함.

이 연구는 2006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였음.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좋은 논평으로 도움을 주신 채정민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E-mail : chungj@chungbuk.ac.kr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새터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터민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 관계를 맺고 서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터민의 경우는 같은 한반도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여 문화적 거리가 가깝다고 여기기 쉬우나, 산업화가 덜 된 사회주의 경제에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가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제로 이동한데서 오는 충격이 크다.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해결 과정과 양상은 향후 보다 본격적인 남북한사회 통합이 전개될 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최근 몇 년간 새터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연구 성과들을 모은 책도 발간되었다(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2006). 하위집단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적응정도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의 적응 과정이 쉽지는 않음을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가? 문화적응 연구자들은 이주자들의 적응 방식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보다는 자기의 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 문화에서도 유능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어 두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적응방식이라고도 하고(Berry, 1980, 1997), 원래 자신의 문화와 주류문화를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도 발표하였다(Oetting & Beauvais,

1991). 새터민 교육에 대한 논의(정진웅, 2006)에서도 ‘적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종의 ‘자발적 비적응’, 즉 자신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남한사회의 지배문화를 객관화, 상대화하고 이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터민 적응교육의 성공적 실행은 역설적으로 ‘사회구조적 적응’과 ‘적절한 정도의 문화적 부적응’을 ‘성취’할 수 있는 교육력을 동시에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남한문화를 배우서 남한식으로 살려는 마음이 북한문화를 일부라도 유지하겠다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남한에 왔으면 북한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남한사람들과 똑 같이 되는 것이 성공적인 적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능력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벌면 남한사회에서 큰소리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 새터민들과 만나면 북한 말씨를 쓰고 북한 이야기를 하고 북한식으로 지내게 되기 때문에, 남한문화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 다른 새터민들과 만나지 않고 일부러 피하고 살기도 한다.

남한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 왔으면 남한식을 빨리 배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생활 측면에서 남한문화의 이해와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의 문화에 대한 지식, 직업을 위한 능력, 대인관계의 유지 등을 포함한 유능함을 키워나가야만 적응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새터민들이 그 단계를 넘어선 후에도 북한문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부족하여 이주자를 차별하고 동화를 강요하는 남한의 문화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윤인진(1999)의 연구에 따르면,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면서 느끼는 심리상태는 소외와 주변화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남한정부나 주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홀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이것은 정착시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새터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갖게 되고 남한사회의 일원이라는 귀속감을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새터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신뢰와 수용의 정도를 조사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남한사회가 새터민에게 별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남한사람들의 무심한 대응은 새터민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덧나게 하고 그들의 의지가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보다는 좌절로 꺾이게 한다.

본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동화’의 관점이 아니고, 남한의 사회문화와 북한의 사회문화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새터민의 적응문제를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남한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북한사람들의 공존의 연습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문화

적 갈등의 요소와 갈등의 처리 과정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한 남한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남북한주민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새터민 스스로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갈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새터민 문화통합교육의 주요 주제를 발견하고, 새터민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주민이 지각하는 새터민의 특성과 갈등요소를 파악하여 남한주민들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주요 주제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방 법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새터민들과 남한주민들이 문화차이로 인해서 경험하는 갈등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겪는 경험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갈등의 핵심적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해석까지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보다는 심층면접이나 참여관찰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독일에서 통일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개관한 채정민,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 보고형 검사나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응답에 가감할 여지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심층면접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6년 협동연구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에서 수집한 것으로, 20세 이상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표집 하여 미리 작성한 질문문항에 따라 반 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진행하고(응답자 번호 C1에서 Y2), 새터민 접촉집단(Interface personnel)에 대한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한(응답자 번호 B1에서 B7) 것이다. 집단면접조사는 신변보호 담당관과 새터민 지원 단체 자원봉사자 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3명,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선행연구 결과 및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문화갈등 및 문화통합의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건강하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새터민들이 지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동화의 대상이 아닌 행위 주체로 보는 관점, 새터민과 남한주민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 면에서는 새터민과 남한주민들간의 갈등의 요소들을 상호이해교육의 핵심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들이 양쪽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들과 남한에서 살면서 차별 받았다고 느끼는 상

황들, 그리고 새터민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대하는 신변보호담당 형사들과 자원봉사 교사들이 새터민의 특성으로 지적한 점들을 살펴보면, 남북한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걸림돌이 되는 서로의 특성과 인식들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정진경, 2007).

두 개의 시각: 차별인가, 아닌가?

새터민들은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차별을 느낀다. 차별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인식에서 개인차가 크고 차별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차별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웃이나 상인들에게,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남한사람들의 부당한 차별행동을 당하는데, 특히 직장에서 차별 당한 경험이 가장 많다(조정아, 정진경, 2006).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서이기도 하고, 일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도 해서이다. 새터민은 잘 써주지도 않고,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고,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월급도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해 버리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 등 갖은 차별을 다 당한다고 억울해 한다. 또한 무시하고 심하면 경멸하며, 따돌리고 소외시키며, 근거 없는 의심을 하거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억울해 한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실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우선 불신과 의심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근거 없는 의심을 경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새터민을 접해보지 않은 대다수의 남한주민들에게도 작용하여, 새터민에 대한 막연한 이유 없는 거부

감을 갖게 만든다.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임금이나 근로 형태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장면에서 새터민들은 문화적 차별을 경험한다.

식당일 할 때 사장이 식당이 잘 안되었어요. 근데 그때 조선족 두 명, 북한사람 두 명 있었거든요. 근데 참 기분 나쁜 게, 유독 딱 저희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되면은요 다 보내고 우리 둘 얹혀 놓고요, 인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뭐도 어떻게 해라고 하고요. 개네 하는 만큼 내가 하는데, 우리가 웃지 않아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참 그거도 스트레스 은근히 받더라고요.(Y2)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이 새터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남한사람들은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터민들이 차별 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남한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신변보호담당관의 말은 그런 생각을 대변한다.

북한이탈 사람들은 남한사람이 말도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걸로 느끼나 봐요, 편파적으로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일도 안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사업인데 일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이탈주민들이 볼 때는 내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격지심으로 느껴져요. ...

자기들이 그렇게 차별을 만들죠, 우리가 북에서 왔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나봐.(B1)

신변보호담당관들은 새터민들이 직장에서 억울하게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담당한 새터민이 업무능력이 모자라는데도 업주에게 부탁하여 어렵사리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취직한 후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지적하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어 버린다는 것이다. 두 달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퇴직금은 왜 안 주냐고 불평을 하면서 그냥 놀고먹어서 속을 썩인다고 한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볼 때, 새터민들이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사회주의적 의존성이 있다. 자신은 경쟁력이 없고 국가에 의지하려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소외감, 자격지심을 느끼고,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비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새터민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교육하면서 가까이 지내온 교사들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새터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자원이 부족하여 좋은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데, 이를 차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자아가 약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새터민이라 차별 당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간에 새터민 관련업무가 주어진 것에 비하여, 새터민 지원단체 상근자들은 새터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여 여러 해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도 새터민들이 실제로 차별 당하는 것보다 차별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장 같은 경우는 잘 지내는 친구들도 많지만, 못 지내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본인이 자원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낮은 대우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은 기술이라든지 학력을 충족시키는 게 맞는데, 내가 새터민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 아, 이 사회는 치사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죠.

아이들 자체가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문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자기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자아가 약해서 피해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는 친구한테는 꼬집어서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요, 얘기해 주면 받아들일만한 친구가 아니라서. 그런 친구의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쫓리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새터민이기 때문에 쫓렸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도 새터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이 다 그래요.(B3)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새터민들은 구조적, 문화적, 일상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새터민의 시각과, 새터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히려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잘

못된 편견이 오해와 갈등을 낳는다는 남한사람의 시각, 이 두 가지 관점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남한생활이 길어지고 남한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새터민들 중에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 많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실제로는 차별이 아닌 상황을 차별로 해석하게 하는 원인을 새터민들의 사회주의적 의존성에서 찾고, 정착 지원 교사들이 새터민에 대한 편견의 문제를 새터민의 열악한 사회적 자본과 북한사람들의 인성적 특성에 기반해서 이해하려한다면, 남한사회를 이해하게 된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자본주의적 고용 원리에서 찾고 있다. 사업에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면 같은 돈을 주고 더 일 잘 하는 노동자를 찾아야 하는데, 새터민들은 아직 남한 문화도 잘 모르고 노동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을 적게 주거나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찰을 전제한 남한에 온지 6년째인 한 새터민의 시각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문화적 유능함을 습득한 사례를 보여준다.

당연히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고 싶지, 이제 막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격차이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내 장사 인거야. 직원을 부려도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원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북한사람이니까 적게

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돌려서 얘기해요. “니가 한번 장사해봐라. 니가 장사를 한다면 사람 월급을 크게 줄 것 같으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C1)

이 시각은 남한주민과 새터민의 관점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새터민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터민이 남한의 문화를 배우고 능력을 키워서 직장에서 원하는 훌륭한 인력이 된다고 해도, 취업, 직무배정, 승진, 해고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북한 출신이라고 심정적으로 무시하고, 따돌리고, 근거 없는 의심을 하는 등의 차별행동을 남한사람들이 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새터민들은 남한에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남한사회의 원리들을 배워야 하고 남한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한사람들도 새터민들만 남한에 동화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이 새터민들을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내려고 노력하여 중간에서 만나려는 자세가 되어야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분석에서 드러난 주요 범주를 토대로 남북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새터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다음은 새터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 포함시켜야 할 주제들을 각각 유목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새터민-남한주민 간의 적응은 남한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이

루어지지 때문에 아무래도 새터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된 주제들은 남북의 문화적 차이가 갈등과 오해를 부르기 쉬운 상황에 대하여 배워야 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북한에서 통제와 감시 속에 살다가 남한에 오면, 새터민들은 넘치는 자유가 신기하게 느껴진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가고 싶은 데 다니는 것, 신문과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고 찾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는 것, 쇼핑을 다니면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살 수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찾은 이러한 자유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만끽한다. 어디를 가볼까, 무엇을 해볼까, 어떤 걸 사볼까 하는 새로운 궁리가 이어진다.

살다 보면 남한사회의 좋은 점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체제를 놓고 볼 때, 사회주의가 좋은가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가? 살아보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더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자율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율적으로 내가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 이거야. 물론 한국도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그런 것이 있었겠죠. 뭐, 민주화 운동이 있었겠지만. ... 교육 부분에서는 열린교육이라는 거죠. 영어, 일본어 뭐 자신이 지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안 돼요. 유학이라든가 모든 게 안 돼요.(C1)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도 적응하기 힘든 면

이 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열려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살결물’이 하나 필요해서 상점에 가면 커다란 가게 하나 가득 화장품이니 도대체 무엇을 사야할지 종잡을 수가 없고, 옷 한 벌을 사러 백화점에 가면 몇 개 층이 옷으로 가득 차서 나에게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 고를 수가 없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애를 먹는다. 과목이 딱 짜여서 나오는 북한의 대학과 달리 여기는 수백, 수천의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 그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옆의 남한 아이들은 어떻게 필요한 과목을 그 중에서도 잘도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앞으로 무슨 직업을 택해서 평생을 먹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정말 막막하다.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온갖 직업들이 있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려면 별별 준비를 다 해야 하는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다.

이렇게 새로이 쏟아진 자유와 선택이 영 힘겨울 때는 전처럼 누군가가 알아서 결정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자유와 선택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낯선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려니,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대로,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대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새터민들은 이런 자유와 선택, 책임의 상황을 초기에는 한 편으로는 반기고 한 편으로는 힘들어하는 양가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다. 차차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풍요와 자유와 함께 한 묶음으로 같이 오는 선택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된다.

내가 한국에서 솔직히 힘들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나면 그 선택, 선택! 야, 나는 선택의 힘이 아주 미약하구나, 너무 없구나 하고 느낀 것이 무엇이나면, 그 가까운 데 쇼핑을 가면 옷을 구입하려면 옷이 하도 많잖아요, 거기서 내가 옷을 구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면서 누가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빠가 봐주고 올케가 봐주고. 최초에 느낀 게 너무 너무 힘들다, 제일 처음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말도 그렇지만 그거 보다는 스스로 선택을 해라, 뭘가를 골라라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들도 하도 많은 중에서 골라라, 뭐 대학들도 너무너무 많은 중에서 골라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굉장히 큰 한 마디로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제일 미약하다는 것,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의 하나가 선택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북에서 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H2)

새터민들은 새로운 생활에서 진학이나 직업을 비롯하여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과제가 수 없이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의 적응교육에서는 이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낯선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모든 일에 대처하도록 한다.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다.

새터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의 하나는 여기는 노력한 만큼 나에게 대가가 온다는 것이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무거운 한편, 노력에 따르는 달콤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사회주의에서 국가가 생활을 해결해주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취나 성실한 노력이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것에 비하여,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새로이 배우게 된다. 이 원리를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적응이 빠르다. 여기에는 개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새터민 중에는 이를 빨리 파악하고 반기며 새로운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응해가는 사람도 있고, 의존성을 떨치지 못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남한사회의 차별에 돌리며 부적응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여기는 능력만 있으면, 열심히 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자기가 누리고 싶은 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잘 적응한다는 게 그거예요, 딱 게 없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북한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에 욱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적응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줌마들 집에서 놀고, 정말 고스톱이나 치고, 놀러만 다니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맞벌이 해봐요, 얼마나 가정에 보탬이 되겠어요.(C1)

국가가 알아서 사람들의 길을 정해주고 살게끔 해주는 사회주의적 방식에 익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찾고 어떻게든 직장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한 생활 초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이 많다. 신변보호담당 형사들은 새터민들의 의존성을 많이 지적한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 주려니,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인 형사들이 알아서 해주려니 하는 새터민들의 태도를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에 길들여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해보지만 한 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음은 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새터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거. 너무나 차이가 나요. 자기가 자성해서 일어나 생각해야 하는데, 나라에 의지하고, 신변보호 담당자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안 되면 술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일 나고.
(B1)

새터민의 교육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기대했던 많은 것들을 여기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그 대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학과 직업 등에서 다양한 길이 열릴 수 있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새터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잘 써주지도 않고,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고,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월급도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해 버리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 등 갖은 차별을 다 당한다고 억울해한다. 그러나 업주나 동료들의 입장에서 새터민을 보면 일숨씨는 없고, 쉬운 일만 찾고, 게으르고, 일일이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이니 환영할 수가 없다. 새터민이기 때문이 아니고, 훌륭한 근로자가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노동 강도와 규율이 북한보다 매우 강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 신변보호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회사나 주유소 미용실 같은 데 소개시켜주는데 안 다녀버려요. 왜? 힘들다고. 배우는 거 자체가 힘들다고. 말썽이 있었던 한명이 있는데, 취업한데 가서 알아봤어요. 내가 시켜준 데도 있으니깐. 그러니까 조금 게으르다 이거죠. 조금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면 성질내고 나가 버린대요, 안 다니면 될 거 아니냐고. 거기서 한마디 하면 싸움이 되고.. 북에서는 네 시면 네 시에 끝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도 달라 그 말이지. 시간제로 들어가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라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돈 많이 벌수 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있어서 잘 안 되더라구요. 전반적으로 힘들다고 그만두려고 하는 게 많죠.

탈북자들은 제일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서빙, 술집이나 편한 그런 것만.. 음식 솜씨도 없어요. 할 줄도 몰라, 말 들어 보면. 지금 보면 삼십대나 이십대 중반들 대부분 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은 게으르다는 나쁜 인식이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 쓰레기 같은 것들 버려야 하는데 있잖아요, 안 버린대요. 꼭 시켜야 버린대요. 꼭 일을 시켜야 한대요. 방식이 그렇대요. 이래가지고 한번 써본 사람들은 다신 안 쓴다고 하구요. 게으르고 불평불만이 많다고.(B1)

신변보호담당관들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만든다’. 업주의 입장에서 새터민을 보면 능력이 모자라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없고 성질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니 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새터민이어서가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새터민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조선족은 일을 열심히 해서 환영한다는 점을 말한다.

새터민의 교육에서는 북한의 직장관과 남한의 직장의 문화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남한에서 환영받는 근로자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 직장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새터민들의 사례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규칙을 존중한다.

새터민들이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많은 남한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도 또래들과의 놀이 등에서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어른들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해서 규칙을 깨고 무엇을 좀 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보통 남한 아이들의 또래에서 집단 놀이 활동의 규칙을

지켜가며 해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B2)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 혹은 합법적으로 뭔가 잘 안 될 때, 가령 퇴소하고 나면 하나원을 다시 못 들어가고 혹은 하나원에 무슨 물건을 반입을 못 시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전화를 하는 거죠. 하나원에 누가 왔다, 친척이다, 이걸 꼭 좀 보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애가 북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몇 학년으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올려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런 류의 부탁을 가끔 하죠. 사실 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설사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땐 고민이 되죠. 일단 못한다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 뒤로는 저를 힘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요.(B2)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부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은 공권력은 두려워하고 압도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만, 비교적 가깝고 신세진 사이라도 공권력이 없으면 쉽게 무시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지적한다. 하나원 같은 공적기관에 있을 때는 순응적이다가, 그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태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권력, 힘의 구조에

순응적인 면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만난 분들은 저를 공무원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연락하면 반갑다고 하시다가 얘기하다보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인간관계로의 어떤 것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B1)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새터민들만의 특징은 물론 아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남한주민들이 보기에 새터민들이 그런 특성을 두드러지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면 남한생활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본인에게 불만이 되거나, 주변의 인간관계를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은 사소해 보이는 규칙이라도 최대한 지켜야 하며, 규칙을 깨고 무엇을 좀 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기존의 많은 사례를 예로 들어 남한 생활에서는 정상적인 과정,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켜서 신용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

새터민들의 직선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남한사람들은 무례하고, 배려가 없고, 타협할 줄 모르고, 폭력적인 것으로 종종 느낀다(조정아, 정진경, 2006).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일반적으로 새터민들이 직장 내 동료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주요

한 원인이 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와 그에 대한 새터민의 감정 표현들이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 있는 그대로. 조금 안 좋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썩잖아요, 그냥. 이건 아니다 말이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 싫다, 직접적으로 막 얘기한다구요. 남쪽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행동한대요, 나보고. 윗동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안 굽혀요. 막 저두 뭘 좀 참자고 했다가도, 그걸 참으면 잠이 안와요. 참으면은 막 요기서(가슴에서) 화가 치밀고, 오히려 참으면 더 화가 나요.(K3)

쌓인 게, 남자들이 주먹질해서라도 풀면 다시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니까 더 화가 터지죠. 그래서 그 직장을 튀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직장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다 울화를 터트려놓고 싶은 욕망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K8)

한편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의 의사소통방식이 겉과 속이 다르고, 솔직하지 않고 허식적이라고 느낀다.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 친절함 태도 등을 보고 아주 마음이 잘 통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상황에서 다

른 행동을 보이면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웃음과 항상 앞에서 배려하는 척, 돌아서면 모르는 식, 그 양면성에 많이 걸려들죠, 북한사람들이. 그런데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입고. 첨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 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일단 돌아서면 모르고. 언제 봤냐는 식으로, 필요할 때만 뭐.(S1)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오해와 갈등이 점점 쌓이기 쉽다.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의 부드러운 말이 가식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선적인 비난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행동이라도 문화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면 오해가 오히려 고마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방식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임을 이해해야 한다.

화가 나도 감정적 대응을 일단 자제한다.

새터민의 적응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흥분해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급한 성격이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책도 여러 가지로 궁리해보고 결과도 예측해 본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 순간에 내키는 대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성향은 때로는 폭력 행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녀노소에게서 다 이런 성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나중에 보면 거의 틀림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지만, 그런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는 남한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상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학급 친구들에게 왕따, 따돌림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가 조금 힘들어했을 때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 상황을 종료시키고 애를 데리고 나오고. 그때 어머니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후회한다기보다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냐. 어머니는 그 순간, 피해의식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무시당하고 살 이유가 없다, 학교에 가서 이렇게 나가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학교 그만 뒤라.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엄마가 다 이렇게 정리를 시켜놓은 상황이라 학교를 자퇴 아닌 자퇴를 하게 된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격이. 그게 남한사회에서 정말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사니까 위축되어 있어 피해의식을 갖고 보니까, 급할 수밖에 없는, 과정상 짐작되고 이해는 되는데...(B4)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때로는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는 심한 말이나 폭력 행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일을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를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기도 한다. 교육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

한 문화적 허용정도가 남북한 간에 차이가 커서 북한에서는 씩씩하고 시원시원하다고 여길 수 있는 행동도 남한에서는 과격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여겨져서 두고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여 행동 방식을 바꾸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실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

북한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새터민과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상식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든든해서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남들 앞에서 체면이 상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모두에게 명백할지라도 공개적인 상황에서 비난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으로 해석된다. 남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 굽히는 것이고, 바보 같은 짓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남한사람들을 매우 당혹하게 한다. 남한사람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도 우기니까 말도 안 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고, 북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많은 데서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라고 망신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분노하게 된다.

공개적으로 내가 어떤 지적이나 문제된다는 상황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면 머저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공개적인 상황에선 쉽게 순응하지 않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벌점을 받기도 해요. 자기가 이걸, 그 선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면 일종의 개선의 여지를 보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해서 별점을 받는데, 별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안 진다는 거죠. 오히려 더 웃긴 건 그렇게 별점을 받고 상황이 종료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머저리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사람으로 쉽게 말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런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문제겠구나.(B2)

타협이 잘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식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물밑교섭이 잘 되고,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접근하면, 적어도 타협은 아닐지라도 그 여럿 있는 데에서의 격한 반응보다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축약해서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B4)

새터민 교육에서는 남한사람들이 이러한 태도에 매우 당혹해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수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행동 방침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남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아 신용을 얻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더라도 오히려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훌륭한 행동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모두에게 명백한데도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태도는 남한에서는 곳곳하다고 보지 않고 부당하다고 본다는 것을 설명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남북한의 문화를 비교했을 때, 북한이 좀 더 집단 목표와 협동을 중시하고 일탈을 경계하는 집단주의라면, 남한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남한사람들의 저박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새터민들에게 비친다. 내적 결속력이 높고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는 북한의 직장 문화에 익숙해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직장 문화는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비친다.

북한사람은 맘이, 이 사람이 한 작업반이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이걸 남의 일로 아니 생각한다 말입니다. 았으나 서나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고 뼈 아프게 동정하는데, (남한에서는) 아무리 한 직장에 있어도 그 어떤 사람이 곤란한 일은 자기 뉘 감기만 치도 여기지 았더라구.(Y1)

(남한에서는) 자기 맡은 업무만 딱 하고 아침 출근해서 인사 나누고 하루 종일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자기 업무만 하고 퇴근시간 되면 가고, 그게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저쪽(북한)에서는 아침에는 딱 모임이 있고 저녁에 딱 총화가 있고. (여기)는 이걸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구요. 편하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자유스럽게 하잖아요. 간섭을 안 하잖아요. 자기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참 이상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 여기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딱 하면 되고 누가 간섭을 하는 게 없으니까 편해요. 편

한데 직장생활이 재미는 없어요, 복보다는. ... 업무 이외에는 다른 거 전혀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자기 일만 하고 회사 출근해서는 일벌레, 일만 하고 퇴근하면 모르고. 그 사람 집이 어딘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무관심.(H4)

새터민 대학생들은 수학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데, 남한 대학생들의 새터민에 대한 몰이해와 이기주의 때문에 적응이 더 어렵다고 느낀다.

1학년 때 내가 03(학번) 동생들하고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아, 개인주의 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자기 그것밖에 모르고. ... 레포트 하나 쓰라고 해도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니까, 이 사회를 잘 알아야 레포트 쓰겠는데,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03동생들은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자른다고 보다는, 좋게 있잖아요, 자기네가 내가 질문해주면, 사실 난 질문해 준 거 보다는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질문해 준 것만 대답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고요. (03동생들은) “형, 인터넷으로 좀 자료 같은 것 알아보라”고 하고. 사실 개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자료, 정보 수집해가지고 레포트를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H3)

그러나 이기주의적이라는 이런 비난은 남한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라난 남한 대학생들은 남이 노력하여 만든 노

트나 자료를 좀 빌려달라는 새터민 대학생의 태도가 오히려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태도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이고 쌀쌀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섭섭해 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과 시간을 보호하고 자기의 성취를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는 태도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주의를 집단을 개인에 우선시하여 집단 목표와 집단의 공동체적 안녕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의 상대 개념으로 이해하고, 남한사람들의 개인주의를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이해해 보도록 한다.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

새터민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새터민들은 성역할의 측면에서도 남한사회에 상당한 적응이 필요하다. 한 예로 어느 새터민은 남한의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고 툭툭 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한 새터민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남한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그 날부터 그 여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고 한다. 많은 여성 새터민들은 남한에서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동등한 위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전우택, 2000). 이러한 차이는 분단시기 동안 양측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사회변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남북한사람들이 만났을 때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되고 남북한사람들의 심리적 화합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정진경, 2002)

사실상 새터민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한사회 편입 후 남녀평등, 여권의식 등이 강한 남한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의식 변화를 겪게

되며(조영아, 전우택, 2005),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남성우월주의 내지 남존여비사상이 강한 새터민 남편들에게 저항하며 가부장적 가정문화에 변화를 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강한 새터민 남성들은 그와 같은 배우자의 의식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워함으로써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며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으로까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부간 갈등이 새터민 가정들에 있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새터민 여성과 마찬가지로 새터민 남성들도 점차 의식이 변화된다. 새터민 남성들은 남한사회 편입 후 북한에서와는 다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수평적 부부관계 등을 보고 접하면서 점차 가부장적 의식과 태도를 지양하며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등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써 노력한다. 또한 새터민 남성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노력은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으로도 인식되어 있다(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좀 달라졌죠. 북한에 있을 때는 여자라면 좀,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라면 자기보다 한참 못한 걸로, 이러한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많이 좀 고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나하고 동등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와이프를 대하는 게 옛날보다 북한에 있을 때 보다 많이 틀려졌어요. 여자를 좀 존중할 줄도 알고. 여기 와보면 여기 또 생활 풍습이 그러니까, 여기 또 아내 일도 도와주고.. 아, 이건 옳은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집안이 또 화목해지더라구.(C3)

남한사회의 성역할과 인간관계의 양상은 더욱 진보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새터민들에게는 상당한 적응의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새터민 남성들에게는 그 간극이 상당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교육에서 강조해야 한다.

남한문화에 대해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다.

남한의 다양하고 화려한 미디어는 새터민들이 남한문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신문, 텔레비전, 영화 등을 열심히 보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열광한다. 청소년들은 남한에 온지 몇 달만 지나도 뛰어난 한글타자 실력을 갖추고, 음악파일 다운로드, 동영상 보내기, 자기 홈페이지 만들기 등 인터넷의 달인들이 된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는 새터민들이 남한의 일상과 인간관계, 관심사와 가치관을 폭넓게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그를 통해서 남한사회를 관찰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편수, 화려한 배경과 현란한 카메라의 움직임 등에 감탄을 하게 되는 한편, 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잖이 실망을 하게 된다. 오락성, 흥행성 위주로 만든 코미디나 이야기 줄거리가 지나치게 꼬인 멜로드라마 등을 보면 많은 새터민들은 저런 이야기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는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본 영화들은 체제를 위한 선전수단이었다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거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가치 있는 예술작품들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남한의 영화들은 상업성만 생각하고 의미 없는 내용들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새터민들이 잘 만든 남한 드라마나 영화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태백산맥’, ‘모래시계’,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웅이 등장하고,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 투쟁하고, 숭고한 희생이 있는 대하드라마적 성격을 띤 것들이다. 새터민들은 이런 드라마를 보고 내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감동적으로 보았다고들 한다. 남한의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신문 매일 봤어요. 티비도 보는데, 드라마 하나를 봐도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딱 알겠더라고요. 북한은 영화도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 수단인데, 사상 예술적으로 아주 수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우상숭배 그것만 빼면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제고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주의, 북한 영화나 중국 영화나, 인간의 운명,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가치가 무엇인가를 주로 다루어서 재미 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 보니까 상업성, 돈벌기 위해서, 영화를 보면 가령 색즉시공이라던가, 그 코메디 보고나면 아주 험한 느낌이 들거든요. 북한에서는 영화보고 뭔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영화 저질이다, 보지 말아야지, 한국 영화는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요.(H3)

새터민들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남한사회의 상업적 소비문화, 쾌락추구문화가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한다. 퇴폐적 행동이나 무책임한 인간 관계를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남한의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에 아들이 물들까봐 걱정이라는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북한에 있다면 지금처럼 아들을 통제를 안 할 거예요, 사회 자체가 이렇게 무질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관계가 여기처럼 뭐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아 가지고 뭐 미혼모가 있다든가, 북한은 부모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게임방이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울려다 보면 여자들과 사귄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나름대로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사고칠까봐.(C1)

미디어를 통한 남한사회 관찰은 제한된 시간 안에 폭넓은 간접체험을 제공해주는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하여 선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새터민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한사회가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화를 예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관찰하는 태도가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다음은 남한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을 유목화 하여 정리한 것이다. 새터민-남한주민의 상호작용에서 남한주민들은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주류집단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된 주제들은 새터민들의 문화와 특징에 대하여 배워야 할 내용도 있지만, 기득권자로서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 평화교육의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새터민들을 많이 대하는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과의 언어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새터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어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언어는 여러 가지로 장벽이 된다. 우선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차별을 당할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말씨는 이들이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린다. 때로는 강원도 출신이나 연변출신이라고 둘러대 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말씨 때문에 자신의 출신이 밝혀질까 봐 위축되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북한사투리와 억양을 고치고 서울식 표준말을 쓰기 위해서 새터민들은 노력을 많이 한다. 아이들은 비교적 빨리 서울말을 배워서 얼마 후면 말씨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가 되지만, 어른들은 말씨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말 들으니까, 몇 번 상처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새터민이라는 사실

을) 싹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린다는 친구들 만나봤는데, 지판에는 가리웠는데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한번은 가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손이 베니까 가서 밴드 가져오라 하는데, 밴드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밴드가 뭔데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난 밴드가 뭔지 모르는데,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나름대로 변명했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저놈 조선족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K8)

한국말이라도 문화가 달라서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길거리에 “OO 화재”라는 간판도 처음에는 수수께끼 같다. 그것이 보험회사의 간판이라는 것도 알 수 없고, 누가 보험회사의 간판이라고 가르쳐 준다한들 보험회사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도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어서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한다. 북한에서 “괜찮습니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없습니다” 때문에 새터민들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한 예다.

더군다나 저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굴이 못쓰게 됐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는 그거 얼굴이 축났다는 말이거든요. 얼굴이, 아파서 살이 많이 빠졌다, 그 소리였는데. 얼굴이 못쓰게 됐네? ...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언니였는데.(K2)

영어는 새터민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다. 길거리의 간판이나 텔레비전의 광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상생활의 용어도 모르고, 컴퓨터 용어는 거의 모두 영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전문 업종으로 가려해도 영어가 장벽이 된다. 자동차 정비학원에 다니던 청년이 용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중하차하기도 한다. 영어에 어릴 때부터 매달려 사는 남한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어가 노력한다고 단기간에 느는 것도 아니어서 새터민들은 영어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몽땅 영어로 써버리니까. 대화가 거의 80%가 영어예요. 회사가 모든 전자부품이 영어니까. 북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지만, 이렇게 글을 보면 읽어서 번역은 되는데 발음이 틀려요. 영어가 처음에 와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익히니까, 5년 하니까 거의 적응되었습니다.(K7)

새터민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남한사람들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씨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웃음거리로 삼지 말고,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고, 가능한 한 영어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가 심한 경쟁사회임을 인식한다.

남한사람들은 워낙 그 안에서 자라 체질화되어 별로 경쟁이라고 느끼지 않고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도 새터민들에게는 심한 경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남한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남한사회는 살벌한 곳이라고 느끼

게 만든다. 남한의 문화가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 등으로 점철되어 경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되어있고, 이를 새터민들이 매우 낯설게 볼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저녁에는 술 마시고 놀다가도 숙제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정확하게 제출한다면, 대부분의 남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할 일 하는 이 행동이 새터민 학생에게는 첨예한 경쟁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내가 좀 많이 대상했는데, 내 앞에서는 공부하고 맨날 집에 가서 저녁에 술 마시고 노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이 사회가 정말 얼마나 첨예한 경쟁사회라는 것을 아니까, 부모세대로부터 교육받고 자라면서도 그게 체질화되어 가지고. 밤늦게까지도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어떤 애들은 수업 시간에 막 졸더라구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날 딱 교수님 과제 정확하게 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소위말해서 이 사회는 경쟁사회고, 지금은 이제 이 사회를 정확히 다 알고 있지만, 학벌사회고, 학력사회잖아요. 학력 없이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회사에 취직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지애를 썼거든요. 한국 사회를 정확히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잘 벌어야지 잘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잖아요, 돈! 능력제일주의사회고, 경쟁 사회고, 돈!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도 큰소리치고 하는데. 그래서 하고 생각하다가 무조건 나는 대학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으로서 이 사회에 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H3)

내적 결속력이 높고 다소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는 북한의 직장 문화에 익숙해있던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직장 문화는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것으로 비친다. 이들은 남한의 직장 문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면 다 같이 사회주의로 가자, 이런 게 주의이지, 여기서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일을 배워주나, 기술을 배워주나요. 기술 낮은 사람이면 낮은 임금 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기능 없는 사람은 월급도 임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밑바닥을 주는 거고, 그 기능공은 높은 임금을 주면서 또 그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K2)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경쟁이에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과연 그 경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 자체가 너무 치열한 경쟁이래요. 경쟁은 좋은데, 도가 지나치면 사람 삶이 좀 고달파질 것 같아요.(C5)

남한사람을 위한 교육에서는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도 때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경쟁문화가 체제도 낫설고 경쟁을 위한 자원도 부족한 새터민들에게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 위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한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고 새터민들을 또 하나의 경쟁상대로 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남한문화로 안내하는 역할을 말도록 한다.

여기가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곳을 인정한다.

남북한의 노동 강도를 비교하여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 대 ‘죽기살기로’라고 할 정도로 두 문화에는 차이가 있다(조정아, 정진경, 2006). 남한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높은 곳이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잦은 휴식과 ‘느릿느릿 일하기’의 형태로 노동시간의 사적 점유가 이루어진다. 남한에서 일하는 대로 하면 북한에서는 “로력영웅이 된다”는 한 새터민의 말은 이들이 체감하는 남북간 노동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노동강도의 체감온도 차이를 새터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 야간 노동은 밤 12시에 가가지고 한 두 시간 동안 실적 올려놓고, 제일 졸음 올 때, 3시, 4시, 그때는 깜빡 졸아요. 졸고 나서 한 4시부터 또 막 해가지고 인계시간까지 하면 계획을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야간작업이라고 해도 단 일분 일초도 눈을 못 붙이는 거예요. 힘들더라구요. 여기는 단지 한 시간하고 5분, 커피 마실 그 시간 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일하면서 즐거거든요. 그러면 “낮에 자지 않고 돈 벌러 왔다는 게 무슨 잠생각에 자는가”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니까 낮에 감히 단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서너달 하니까 살이 막 이렇게. 야, 이게 살러 왔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L3)

경찰인데, 청원경찰, 그거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도 오랫동안 서서, 줄곧 앉지

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 살피고, 또 여자들 수군거리면 때놓고, 여기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 그래도 무엇보다 참 군복도 받혀 입고 하니까 일할 때 긍지감 갖고 그렇지만, 또 하루 종일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이 힘들고 그래서 (그 만났습니다).(K1)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는 새터민들의 이직이나 사직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노동강도의 세기는 근무 태도와 일에 대한 책임성, 노동 규율의 이완 정도와도 연결된다. 남한 직장의 노동강도가 세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 시간이나 시간당 생산량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도 많고, 창조성 있고, 자의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터민들은 남한 직장의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새터민도 존재한다.

노동의 강도는 한국이 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용접공은 다섯 명이 용접하는데, 하루에 여덟 시간에서 다섯 명이 일해야 한다면 몇 개 나와야 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옆 사람에 대해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해야 되거든요. 노동강도는 그래서 세요. 노동 강도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서 보면 세요. 북한은 남이 강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거든

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왜 못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한국하고 비교해 봐요. 한국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북한은 아니거든요. 남이 시켜서 일을 하니 하기 싫은데 하라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주의 사회의 세계와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K9)

북한에서 일했던 태도와 일의 리듬을 가지고 남한의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기 쉽다. 북한에서는 ‘열성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당히’ 직장일을 하고 ‘적당히’ 자신의 일을 보거나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이 보기에 게을러보이는 노동의 태도에 대한 동료들의 질책은 새터민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담스러움이며, 이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색함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남한사람들에게 새터민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는 ‘나쁜 사회주의 근성’으로, 개인적 ‘게으름’과 ‘불평불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새터민들도 남한의 직장에 적응해 가면서 남한사람들의 노동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 새터민들에게 남한의 직장문화를 참을성 있게 알려주고, 적응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북한의 가난을 겪은 새터민들이 ‘남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남한사회의 엄청난

경제적 풍요다. 대부분이 남한에 오기 전에 남한이 조금 더 잘 사나보다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다. 북한에서 주위보았던 남한의 뼈라 한 장이 종이와 코팅이 반짝이는 게 너무 질이 좋고 그 내용이 놀라워서 남한이 이렇게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새터민들은 초기에 모든 사소한 것에서 남한의 풍요에 놀란다. 고층빌딩의 숲 사이로 차들이 쏟아져 다니는 것이나 고급 백화점의 화려한 물건들도 놀랍지만, 보통 서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나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에 감탄한다. 그 일상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특히 아이들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벽찬 감격으로 다가온다.

아,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어요.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건 알고, 북한에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가 발전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이 너무 발전되었어요. 교통도 그렇고, 정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는 것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시설이, 사우나, 찜질방, 이런 정도가 있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되었고. 또 교육환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접했을 때, A4용지가 너무 고급 종이였고, 학생들 교과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질이 좋으니까 책이 무겁더라구요. 우선 한국에 오니까 전기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있다는 사실, 아침에도 형광등 켜놓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또 좋은 점은 여성으로서 가정에서 모든 전자제품을 마음대로 사

용할 수 있잖아요. 세탁기, 전기밥솥, 청소기, 에어컨, 이런 모든 것이 내 능력만 되면 다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암만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없잖아요.(C1)

남한의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이런 놀라움은 시간이 지나고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사라진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북한에서의 가난과 기근, 질병을 가끔 생각하면, 남한생활이 여러모로 어려워도 지금은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 가난과 풍요의 대조는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사람들은 때로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북한의 가난과 남한의 풍요를 비교하고 강조하여 새터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북한에도 샤프펜 있냐? 놀이공원 있냐?” 등의 질문을 툭툭 던지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한의 좋은 물건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도 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 상황을 넘기면서도 새터민들은 구태여 잘 사는 자랑을 하는 남한사람들이 기분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

당신이랑 나랑 자란 것이 틀릴 뿐이고, 그 중간에 왜 분계선이 있어서, 이념이란 것들이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밖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굳이 운명이 안 맞아서, 당신은 또 운명이 좋아서 이런 사회에 태어났고. (H2)

남한사람들이 새터민들을 대하면서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의 하나가 남북한을 경제적으로

비교하거나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불과 이삼십년 전에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서 겪은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하고 직선적인 새터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새터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에 비하여 직설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조정아, 정진경, 2006). 새터민들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이다. 새터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에 비하여 직설적으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 이는 유치원 때부터 ‘상호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지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에서의 생활방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직설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남한사람들에게는 생경하고 거북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남한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데 대하여 당황하게 된다. 새터민들은 자신이 호의로, 진심에서 한 말을 동료들이 오해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

남한사람들은 새터민의 의사소통 방식을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으며, 터무니없이 자존심이 강하여 타협할 줄 모르고, 때로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북한사람들의 성격과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조그만 말 마음에 어긋나면 딱 뒤집어 놓거든요. 남한사람들은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사람들은) 확 다 꺼내놓고 확 다가가요, 외롭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안받아줘요. ... 그게 정말 큰 차이 같아요.(K8)

저기는 뭐랄까, 정말 수틀리면 한대 쥐어박는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알밋다고 할까,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서 그걸 못 넘겨서 마지막에 흥기까지 드는. 근데 웬만해서는 참아야죠. 참아야 된다고, 사람들 생각은 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살살 약올리면서. 저기는 서로가 이제 뭐랄까, 서로가 성질나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세든 부딪히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서 담배 한대 마주 피우고 좋게 하고, 또 술이나 한잔 하고 그러면, 풀면 끝인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수틀리면 등 돌리면 다 더라구요. 등만 돌리면 다 더라구요.(L2)

북한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나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진짜로구나, 진국이구나, 진정이구나라고. 이렇게 친자식을 보고 나쁜 것도 다 좋다하든 애가 결함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데, 여기 분들은 잘못해도 잘하셨습니다 해야 되고, 그러더라구요.(P1)

즉 남한사람들에게 직선적이고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순박하여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남한사람들에게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새터민들에게는 남자답고 뒤끝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며’, 남한사람들의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은 거짓이고 허식이라고 본다.

여기 남한사람들은 지내보면 뭔가 모르게 교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말은 좋게 하고 웃으며 하고 자기 살점은 다 떼어 줄 것처럼 그래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기인지 거짓말인지 느껴지거든요. 북한 사람은 진짜 진심은 진심이거든요.(H4)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갈등을 불러오고, 이것이 적절한 시점에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새터민 전체나 남한주민 전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새터민들은 소수자로서 남한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적으로 새터민의 책임으로 떠넘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터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남한의 문화 체계를 배우는 것이라면 남한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새터민들의 처지와 문화와 생활방식과 관계 맺기의 방식들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어쩌면 한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새터민이라는 우리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과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남한사람들은 새터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그들의

시각에서 보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새터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새터민들은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떠난 사람들이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오래되었지만,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홍수피해를 입은 후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배급이 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식량을 얻으러 멀리 친척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무엇이라도 내다파는 장사를 시작하기도 하였으나,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다.

‘북한’ 하면 새터민들이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배급이 끊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없이 애써야만 했던 곳이다. 배고픔과 절망, 본인과 가족의 질병, 가족의 죽음, 사회의 황폐화 등 살 수가 없어 떠난 곳으로 일단 기억되는 것이다. 그리운 고향, 가족과 친척들이 남아있는 곳,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일단 옆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죽은 곳, 살아남기 위해 탈출해야 했던 곳으로 가장 강력하게 기억된다.

아버지가 97년도에 돌아가시고, 일년도 못 되서 그 다음해 98년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좀 영향을. 내가 부모님 먹여 살려볼라고 친구들하고 장사도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사하고 해도. 진짜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할까? 완전히 짐승처럼! 누나가 군장교 가족이 되어가고, 그 어려운 시기에 누나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가지고 살고.. 우리집은 98년도까지, 다른 집들은 막 그 아우성치고, 막 굶어죽고, 자식들도 굶어죽고 나갈 때... 나도 장사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전혀 솟아날 길이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일반 평민, 북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북한주민들 수준이란 게 나아질래야 나아질 수가 없고..(H3)

자신도 상기고 싶지 않은 이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남한에 온 새터민들은 남한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대하게 된다. 남한사람들 눈에 비친 새터민의 이미지는 배신자, 거지, 범죄자의 이미지라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이런 거. 그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회사를 갔다가라도 쉽게 자리를 뜰만한 사람이구나. 말은 안 해도 어딘지 모르게 우리를 좀 경계하고 보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H1, 여성, 52세, 전직 교사, 현재 정부 계약직, 1997년도 탈북)

이러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남한사람들은 새터민들이 불편해 하기 쉬운 북한의 가난, 기근, 독재, 이산가족 등의 주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

대방이 먼저 스스로 이야기 삼지 않는 한 이야기를 삼가 준다.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터민 개개인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

뉴스 보도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새터민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굳어진다. 새터민이라는 집단에 대하여 생긴 부정적 고정관념은 새터민 개개인에게 적용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부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 혹은 부모 세대에 경험한 한국전쟁이나 분단의 역사와 관련하여 새터민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약계층의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제도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새터민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그들 개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조정아, 정진경, 2006). 공연히 의심을 하거나 경계심이나 거부감을 드러내어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사람들 대하기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하긴 특별히 모임장소라든가 특별히 일이 있을 때 만나도 웬만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계하게 되요. ... 아니요, 그런 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옆집을) 찾아간다거나 또 좀 친숙할라고 그렇게 하게 되믄 자꾸 이렇게 경계하거든요, 남한사람들이. 그걸 또 싫어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찾아갔을 때 대부분 집에서 노는 것 같지만 다 바빠하더라. 그러니까 정 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상태, 사

이가 아니라면 힘들어요.(C2)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근거 없는 의심을 경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터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B3)는 “자기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하는 것이 껌판이나 놓고 술이나 먹고 이렇더라”는 것이 새터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거부감과 적대감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사건과 같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강력하게 표출된다.

(서해교전 다음날) 회사 들어가서 신발 벗어서 신발장에 딱 올려놓은 순간에 나하고 가장 친한 언니가, 나랑 한때 기술을 많이 배운 언니인데, 그 언니가 그때 오십 살이었어요, 나는 서른일곱 살이었었고, 딱 돌아다보면서, 신발장 위에 신발 좀 올려 놓고 있는데, “너네 북한사람들은 왜 그래 다들 지만 알고, 너네 북한사람들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려하던 일이 지금 터진 거야. 그날 어째 그리 서러웠던지.(K2)

서해교전의 책임이 그 새터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사람 개개인이 남한의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사람이나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스스로 경계하고, 특히 새터민 개개인에게 그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의심하거나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외국으로 이주한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차별을 느낄 때 심리적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에 없다.

개인주의가 심하여 이기주의로 되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한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남한의 개인주의가 종종 저박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새터민들에게 비친다.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고, 친한 사람들 몇이서만 같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집단 전체의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문화가 새터민들에게는 암채 같고 쌀쌀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 북한 같은 경우는 사무원이라고 해도 금요 노동이라든가 뭐 동원 가면 같이 딱 나가서 노동을 하잖아요. 여기는 딱 진짜 사무원이면 딱 앉아서 요거만 하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니까 자기 앞에 일 외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직속상관 외에는 옆에 직원들하고는 그런 것들이 없고. (H2)

그에 비하면 새터민들이 기억하는 북한은 정이 있는 곳이다. 일할 때도 영 힘들어하면 같이 해주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직장에서 하다못해 체조라도 전 직원이 모여 같이 하면서 말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분위기가 사람 사는듯하고 따듯하다는 것이다. 자기 일만 알아서 하고, 서로 어울리는 일 없이 사무적으로 ‘깔끔하게’ 지나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남한의 직장 분위기에서 뭔가 부족함과 소외감을 느낄 때, 새터민들은 정이 있던 북한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솟는다.

(남한은) 서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전혀

그 사람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저쪽이 조금 더 인간관계는 더 원활하게 가지 않나, 차원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굉장히 훨씬 더 앞섰고 깔끔하게 뭔가 이런 거는 있는데, 사람들하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보면 여기는 좀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장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서로가 사실은 직장 동료라면 서로 정말 힘들어 할 때 터놓고 얘기하면서 도움도 요청하면서. 저쪽(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면 서로가 막 해주거든요. 서로 같이 주판알 놀러주고 불러주고, 정 힘들면 막 같이 적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데, 여기는 뭐 같이 늦게 까지 일해도 “수고해라” 이 정도 하고 그냥 가 버리잖아요.. 하다못해 같이 체조하는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껏해야 회식술 먹으면서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 기억도 못 하잖아요.(H2)

남한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북한의 집단주의적 문화 중 어느 것이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문화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남한사람들은 새터민들이 현재 소수 집단이라 소외되기 쉽고 어려운 적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을 배려하여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들은 소수자이므로, 다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한다.

소수자는 다수집단의 압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새터민들처럼 실질적, 상징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입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남한의 주민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유를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동화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간만 간다고 적응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주위의 남한사람들의 지지와 수용이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낸다. 주위의 사회적 지지와 수용을 푸근하게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적응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도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새터민 아이들과 부모들의 변화를 여러 해 동안 지켜본 교사는 아이들이 밝고 적극적으로 변화한데는 방과후 학교에서 받은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에 한누리 학교 아이들과 2년 전에 갔던 장소에 또 캠프를 갔어요. 그 기관에 있는 분이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하시기를 애들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면서, 2년 전 상황을 잊지 않고 계신 거죠. 누가 나만 건드려 봐라, 바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각이 선 상태였다면,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훨씬 아이들이 밝고 자기표현도 적극적이고. 한누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수용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신뢰감이 있을 때, 아이들은 누가 봐도 이제 새터민 아이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밝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느 시점에서 좋은 얘기 들었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B4)

남한사람들의 교육에서는 원거주민(host)으로서 다수집단으로서, 새터민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들의 적응을 돕고 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인식시킨다. 특히 위에 열거한 점들을 포함하여 자기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새터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며 기다린다.

새로운 문화로의 이주는 적응의 과정이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간인가는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나, 이민과 난민에 관한 기존연구의 결과들은 새로운 문화 안에서 잘 기능하기 시작하고 마음도 안정되기까지 대략 3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의 적응이 쉽지는 않은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여러 실질적, 심리적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고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터민 적응문제를 장기간 연구한 한 전문가는 새터민들이 스스로를 ‘남한문화에 적응하는 어린아이’로 자기규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적응이 시간을 요하고 시행착오를 포함하며 많은 남한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미리 인식하고, 남

한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그 과정을 거처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터민들 스스로도 적응과정이라 어려우려니, 내가 새로운 문화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으려니 하고 각오하고 인내심을 다지면서 지내기도 한다.

나는 허심하게, 겸손하게 한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지금 듣자,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연세대학교 들어와서도 먼저 한국 학생들 만나서, 그 학생들 나이는 비록 아래지만 난 세살배기다, 이제 이 사회의 나이는 세살. 개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스무살, 스물세살, 나보다 훨씬 위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내가 개들한테 먼저, 내가 형이니까 먼저 너한테 밥 사준다고.(H3)

새터민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몇 년째 만나며 지켜봐온 교사들은 경험상 새터민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데 한 3-5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 동안은 남한사회를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적응과정을 겪어내는 중이므로, 성급하게 적응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볼 때 잘 지내다, 잘 못 지내다를 반복할지라도 자기 나름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모색하는 적응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한 교사가 전하는 이야기이다.

제 경험에서 결론을 좀 내리면, 어른아이, 남녀 구분 없이 통상 한 몇 년은 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내지는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저는 적응의 실패냐 성공이냐 보다는 과정에 있다고 봤으면 좋겠다고 보죠. 예로 (한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그만 두고 한 두어 달 방황을 했어요, PC방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 때 그 아이에 대해 몇몇 선생님이나 아이들은 “재는 적응을 잘 못한다, 게임중독이다, 문제다”, 했었는데, 두어 달 해보고 이제 지겹다며 다른 걸 해 보고 싶다더니 검정고시 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와, 대학 갔어, 잘 지내네” 하더라구요. 또 석 달도 안 되서 학교를 휴학하니, 또 “재 뭐야”,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다가 지금은 기술을 배우면서 자동차 정비 쪽에 관심 갖고, 사람들이 “재 대학가더니”, 여전히 우려해요. 저는 지금 모습이 좀 안정되어 보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과정이 한 삼년째 모습이거든요. 예전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계획했다면, 요즘은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를 찾게 된 것 같고. (B2)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편해질 때까지는 실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으려니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 그리고 이쪽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도 그쪽으로 다가가서 중간에서 만나 수고를 덜어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맺는 말

본 연구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또한 남한사람들이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그들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터민과 남한주민들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면서 새터민이 남한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동화’의 관점이 아니고, 남한의 사회문화와 북한의 사회문화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이는 문화적응의 양방향성을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성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이러한 문화통합교육은 문화간 훈련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5). 이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학분 분야로, 문화인류학, 문화심리학, 사회언어학, 다문화 교육,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국제 경영 등 다양한 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낯선 다른 문화에 가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훈련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적용 분야가 훨씬 넓어져서 세계화, 다문화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훈련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간 훈련은 집단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타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화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기제를 발달시키고, 새로운 환경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낯선 문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자세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간 훈련 분야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Bennett, 1993)은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이 더 정교화, 세련화 될수록 문화간 유능성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 관점을 벗어나 민족상대주의적(ethnorelative) 관점을 가지게 되면 문화차이를 추구하고 타문화의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인지적 틀을 바꿔서 타문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고, 타문화의 관점에 공감하고 그것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코드전환(code-shifting)이 가능해지고,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목록이 증가한다.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람은 자아개념과 자아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적 세계관 사이의 이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문화적 맥락을 알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심리적 장벽을 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관점을 채택하고 코드전환을 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새터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여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코드전환을 해봄으로써,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선배들의 이러한 사례들을 교육내용에 넣어서 미리 대리경험을 시키면 관찰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성열, 이중환,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2007)

의 연구에서는 남한주민과 새터민들이 서로의 문화와 특성을 파악하여 대인관계 능력과 문화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신뢰가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게임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은 추후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이해지’와 같은 형태로 갈등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 다각도로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현장 사례들이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 새터민과 남한주민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생각은 서로 다른 문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문화를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97-115.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6.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편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 출판부.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163-178.
- 정진경 (2007). 새터민-남한주민 간의 갈등과 문화이해교육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24, (1), 153-175.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85-215.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6.
-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조정아, 정진경 (2006).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 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 29-52.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2007) 독일의 정진건강 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통일심리학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91-114.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33-54.
- Bennett, M. J. (1993). Toward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ed., pp. 21-71). Yarmouth, ME: Intercultral Press.
- Bennett, J. M., & Bennett, M. 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D. Landis, J. M. Bennett, & M. J. Bennet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 (pp.147-165). London: Sage.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 Oetting, E. R. & Beauvais, F (1991). Orthogonal cultural identification theory: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minority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5.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17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30

Issues in the Integr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Hosts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ung-A Cho

Institute for Unification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the major themes for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 which enha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south Korean hosts. The themes were selected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ocio-cultural conflicts experienced by the refugees and the hosts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Twenty-eight north Korean refugees over age 20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two south Korean groups in close contact with the refugees, police and volunteer teachers, were interviewed in focus group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for categorization and coding. The study views the acculturation issue as the two-sided integration task for both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south Korean hosts rather than as the one-sided acceptance and assimilation task for the refugees.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refugee adjustment, acculturation, integration, integration education